제51호 【루계 제2519호】

주체 1 0 7 (2018)년 12월 토요일

음력 11월 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통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겨울철 집중어로전투가 한창인 동 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 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 업소는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잡을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시려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 적인 발기에 의하여 문천지 구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원 양수산사업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 진입 한 인민군대 동해지구 수산 사업소들의 물고기잡이실적 을 매일 보고받고있는데 짧 은 기간에 6만여t의 물고기 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너 무 기뻐 어로공들을 만나 고

무해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몸소 《황금해—014》 호고기배에 오르시 여 만선하고 귀항한 선장과 어로공들을 축하해주시였다.

서 어황이 조성된데 맞게 뜨랄과 건착어 업을 배합하여 도루메기집중어로전투를 색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중심어장을 신 항차당, 기망당, 연유 1t당 어획량을 늘 경영활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일데 대한 문제, 당에서 마련해준 고기 시였다.

주어 그들이 잔걱정을 하지 않고 물고기 말씀하시였다. 잡이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강조하시였다.

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이 멋진 성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로공들과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여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과감하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어장탐 업소의 혁명사적교양실, 랭동저장고, 통 물고기들을 골고루 펴고 물량조절을 잘 구자적역할을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랭동저장고들을 돌아보시면서 저장고마 합조종실을 돌아보시면서 종업원들에 대 하여 물고기블로크가 얼음으로 도포한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속히 타고앉아 련속적인 어로전을 벌려 _ 한 사상교양사업정형과 사업소의 생산과 _ 것처럼 매끈하게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집중어로전 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 들을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 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튼튼히 준 어로공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 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고 시였다.

시면서 지금처럼 나가면 잡은 물고기들 을 저장고에 들여놓지 못할것이라고, 앞 으로 급동능력을 년차별로 2~3배 더 조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랭동블 배전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담화하시면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 로크의 앞뒤면이 얼음으로 덮여야 물고 들이 물고기잡이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집행한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 기가 마르는것을 방지할수 있다고 하시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에 참답게 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27일수산사 면서 랭동블로크를 만들 때 랭동서랍에 바지하며 당의 수산혁명방침관철에서 선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랭동한 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해주 있는 물고기가공장을 기계화, 자동화가 배들의 기술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원성 투의 환경에 맞게 어로굥들에 대한 조 기블로크를 비닐주머니에 넣어 포장하는 시고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으며 위대한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가공장 능유지를 잘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 직사상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 필 작업대를 만들어주며 자동포장기를 제작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력사에 선군절로 으로 품들여 꾸려 후대들에게 넘겨주어 여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더 큰 성과를 이 _ 수5대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그 _ 설치하여 손로동을 극력 줄이도록 하여 _ 기록된 뜻깊은 날에 다녀가신 불멸의 _ 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공장건설과 관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 비시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 사업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광연을 보 4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나라 황금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랭동저장고에 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는것이 좋다고 널리 알려진 《단풍》호고기배들의 고 도 황금해력사창조의 항로를 줄기차계 고 하시면서 식량과 기초식품, 피복, 각 꽉 들어찬 물고기블로크들을 보시며 보 하시면서 공연을 정말 잘했다고, 텁텁 향, 《바다 만풍가》의 고향이다. 종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후방 물산이라고, 금피같다고, 집중어로전투 하고 물고기비린내가 풍기는 구수한 공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하여 기간 며칠사이에 벌써 이렇게 저장고에 연이라고, 당정책으로 일관되고 사상성 8월25일수산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래를 들으니 머리가 다 맑아진다고 하 시며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치하하시

5월27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 능력을 체계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8월25일 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27일수산 수산사업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해력사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헌신의 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봉화를 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명랑 자욱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펴올린 선구자, 본보기단위답게 앞으로

거의다 채워놓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 과 예술성도 잘 결합된 바다사람들의 노 고향,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답게

전국의 제일 앞장에서 실적 을 올리며 물고기대풍을 마 련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시고 높이 평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는 《단 풍》 호고기배들의 고향. 황 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이라 고, 이 수산사업소는 나라 의 수산부문이 다 주저앉았 을 때 당에서 수산전선의 돌 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의 불 씨를 지펴준 사업소이라고, 바로 여기에서 《단풍》호고 기배들이 첫 출항을 한 때로 부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대중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에 장비한 《단 풍》 호고기배들의 성능과 기 술상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고 물고기가공장과 랭동 저장고, 종합생산지휘실을 비롯한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방침관철 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에서 1. 500t능력의 절임탕크를 짧은 기 간안에 실리있게 개조하여 3, 000t능력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랭동저장고로 꾸린데 대하여서와 일급동 하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의 다에 수천t의 물고기를 꽉 채워넣고있는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푸른 물 출렁이는 동해포구에 우리 나 라 수산사업소의 표준, 본보기단위로 훌륭 히 일떠선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 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 들에 1년 365일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조직된 수산사업소이다.

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물고기를 하선 하는 고기배 《단풍 18-01》 호에 오르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한 질서를 세워놓

루메기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고기배 척 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역이 오염되였을 말씀하시였다. 당 1, 000t이상 잡아 계획을 초과수행한 수도 있고 운반과정에 보관관리를 잘하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업소를 조직할 당시에는 수산사업소 물고기들의 품질을 정상적으로 검사하여 랭동서랍의 크기를 통일하여 규격화할데 에서 해마다 3, 000t의 물고기를 잡아 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대화수준이 다른 수산사업소들에 비하여

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로공들의 열 동, 저장, 공급에 이르기까지 물고기를 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 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 준과 운반, 가공처리에서의 자동화, 현

장에서부터 수산사업소까지 운반거리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으로 선단을 무어 내보내며 가공장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8일수산 별로, 어종별로 잡은 물고기들과 보관된 물고기랭동블로크의 무게가 서로 다른데 하시였다.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임지고 돌봐줄것을 결심하고 조직한 수 로가 끝난 다음 진행하는 인민군대 수산 산사업소이며 자신께서 제일 중시하는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라고 하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잡은 물고기들 품질검사사업도 강화하여 원아들과 보양 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굥들이 영예 으로 공급해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을 다루는 과정에 물고기를 오염시키거 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만을 공급하여야 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높은 궁지와 자부 심을 가지고 전국의 맨 앞장에서 새로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루메기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질되지 않게 고기배와 랭동선, 운반선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돌아보며 물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사업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들의 선 면적을 늘여 잡은 물고기들을 모두 실 아지고 기분이 정말 좋다고, 대단히 만 수산을 3대축으로 틀어쥐고 적극 발전시 서 멸치, 숭어, 고등어, 전어, 삼치, 도 도를 보장하는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내에서 가공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족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매달 물고기 켜나가면 인민들과 군인들의 먹는 문제 잡이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 000t급랭동 시간을 내여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 민군대가 앞으로도 황금해력사창조의 선 지 못하여 변질될수도 있는것만큼 계절 저장고를 돌아보시면서 수산사업소별로 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라고 말씀 구자들답게 당의 수산정책을 옹호관철하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보니 하시였다. 수산사업소들의 일군들이 제나름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년말에 집중어 부문열성자회의 및 경험발표회에서 올해 연유보장, 고기배정비정형과 특히 물고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을 엄격히 총화하 며 경험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틀간 현속 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

는데서 계속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당부

본사기자













[3] 주체 1 0 7 (2 0 1 8) 년 1 2월 8일 (로요일)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 산 구 두 공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구두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일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최근 《전국신발전 시회》에서 원산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 신발에 대한 호평 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 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지방의 크지 않은 공장이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공장으 로,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 하는 맏아들공장으로 되였다 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새로 꾸린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소개실, 제품 견본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의 굽이굽이마다에 뜨겁게 깃들어있는 우리 당의 령도 업적을 잘 알수 있게 혁명사 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에 전시된 사

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낡고 초 라하였던 공장이 지난 시기의 모습을 찾 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공장을 돌아보시고 못내 심려하시였던 이 공장 이 오늘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우리 나 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 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헌신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진 공장의 연 방침관철투쟁에 적극 뗠쳐나 높은 생산 _ 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성과로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을 현 실로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갑피직장, 제 면서 당의 방침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갑피직장에서 학원을 갓 졸업한 나어린 재봉공이 조종 프로그람이 설치된 자동재봉기를 다루는

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연구 과정을 자동화하는 사업을 완전무결하 게 실현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

기 위하여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기술혁 풍이 좋다고 평가하시였다.

고함을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 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발의 질을 하는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세계적 인 신발공업발전추세와 신발공학의 내용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들을 깊이 연구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발도안창작사 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견을 종합하여 신발생산 에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좋 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앞으 로도 인민들의 엄정한 평가 에 귀를 기울이고 년령별. 계절별, 직종별특성에 맞게 기호를 파고들어 남녀로소모 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 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발생산에서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 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신 발천, 인조털, 각종 접착 제, 도색제, 광택제와 같은 원료, 자재들을 제대로 생 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 왔는데 신발풍년을 보았다 고, 공장에 생산정상화의 동

음이 높이 울리고 질좋은 신발이 폭포 처럼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 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계속혁신, 계 서 공장종업원들과 생산현장들에서 뜻

본사기자











보

O

1

0

01

TI

하

0

였다.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

안북도의 소재지인 신

의주시의 건설총계획도

와 신의주시도시건설전

망모형사판을 구체적으

로 검토하시면서 신의

주시를 현시대의 요구

에 맞게 보다 훌륭히 건

설하는데서 나서는 과

업과 방도를 제시하시

신문과 TV방송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사

로 가슴끓이고있다.

람들이 격정과 흥분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신의주시건

설총계획에는 인민생활

향상과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그이의 통이 큰 구

상과 비범한 령도력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

이 모여사는 주민지대

이다. 도시를 발전하

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

게 잘 꾸려야 주민들

의 생활과 문명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신의주

시건설사업이 성과적으

로 진행되게 되면 나라

의 한개 도시가 새로 현

대적으로 면모를 일신

하게 되고 이 지역의

인민생활향상에서도 큰

진전이 있게 될것이다.

에서 일하는 김현철은 앞으로 새

로 일떠서는 현대적인 아빠트들

의 살림집들에서 압록강반의 청

신한 공기를 마시며 더욱 윤택하

고 문명하게 살 우리 신의주시인

민들의 기쁨넘친 생활모습이 벌

써 눈에 보이는것만 같다고 하였

다. 도시의 주택구역들안에 꾸려

신의주시인민위원회

그대로 비끼여있다.

장정을 이어가시며 사랑과 헌신의 숭고한

한해의 마지막달인 12월이다. 흘러온 이해의 날과 달들을 되 새겨보면 제일 가슴뜨겁게 안겨 오는것이 인민을 위해 쉬임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 길이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 랑하는 인민이 자리잡고있다.

인민들이 보다 윤택하고 문명 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고 이해의 사계절에도 현지지도강행 군길에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다.

평양제약공장과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고 새형의 무궤도전차시운전을 보아 주시였으며 완공된 고암—답촌철 길,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 물식당과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 지지도하시였다.

사람들이 최악의 고온과 무더 위를 가시려고 강과 바다, 깊은 산골의 피서지를 찾아다니던 지 난 7월과 8월에만도 그이께서는 무려 2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 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무궤 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며 모 든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 산한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백점 만점짜리라고 생산자들의 성과를 치하하시며 오늘은 하늘의 별이 라도 딴듯 기분이 들뜬다고, 년

최근년간에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등 많은 건축물이 건설 되여 신도시수준으로 달라진 평 양의 모습이 세인의 관심을 모으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의 발전이 참으 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 로 놀랍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 어선 고층건물과 평양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였 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다.》고 하였다고 했다.

미국을 비롯해 외부 세력이 자행하는 《대 북제재》는 여직껏 중 단된적이 없다. 미국

은 북미관계개선을 약속한 싱가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 나는 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에도 북의 《선핵포기》를 요구하며 제재의 고삐를 조이고있다. 그런 극도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북이 주춤 거리거나 퇴보하지 않고 자체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놀라운 변화를 펼쳐보이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 비결의 하나를 나는 북의 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인민사랑의 정치에서 찾고싶다. 지난해의 신년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

나 되겠는가고 심중에 차오른 격 정을 금치 못해하신 사실도 삼복 철현지지도의 나날들에 있은 이 야기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이 렇듯 열렬한분이시여서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시는 그이의 발걸 음은 사계절 멈춤이 없었다.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 단 극장, 삼지연군,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건설장,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 신의주시건설총계획지도 등 나 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 며 만복의 화원을 가꾸어가신 그이이시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는 동해지구 수 산사업소들과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몸소 만선하고 귀항한 고기 들을 축하하시고 물고기잡이전 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시였으며 수산사업소 어로공들 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 봐주어 그들이 물고기잡이에 전 심전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하시였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 질좋은 신발이 폭포처럼 쏟아져 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 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 고 기분이 좋다고 하신 경애하는 하는 수산사업소에 가시여서는 원수님이시다.

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

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

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언제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

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

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

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

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

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 고결한

말씀속에는 그분께서

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날이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이제는 하루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원아들과 보양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만 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 였다.

통

고기배에서 금방 잡아온 물고 기를 퍼올리는 모습과 야외하륙 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 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이 멋 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 고 하시며 어로공들과 종업원들 과 함께 뜻깊은 기념촬영도 하 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랭동저장 고에 꽉 들어찬 물고기블로크들 을 보물산, 금괴같다고 하시였고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실적을 보 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 을 내여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 라고 하시였겠는가.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여서는 배에 오르시여 선장과 어로공 최근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원 산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 서 출품한 《매봉산》신발에 대 위한 과업과 방도들도 가르쳐주 한 호평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공 장에 불쑥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신발풍년을 보았다고, 공장에 생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흡족하

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 인생관이 함축되여있다고 본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

> 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고 대소한 의 강추위와 삼복의 무더위도 아 랑곳하지 않으시며 깊은 밤, 이 른새벽에도 인민을 위한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 시는 최고령도자님이시다.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이어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

대한 공사를 벌리는것은 세상에

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

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조국인민

들은 한사람같이 펼쳐나서 도처

에 현대적인 건물들과 인민생활

일떠세우고있다. 어딜 가나 자립

경제의 동음소리가 힘차게 울리

고 한다.

라고 여름이면 시원한 해변가를 거닐고싶지 않으시고 겨울이면 따뜻한 온돌방이 그립지 않으시 랴. 하건만 보통의 각오와 의지 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초인 간적인 정력을 바치시며 경제발 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여 름에도 겨울에도, 낮에도 밤에 도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 가신다.

그이도 인간이시다. 그이이시

그것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 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 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 록 하기 위한 위대한 헌신이였고 강렬한 분투였다.

이 나라의 사계절은 저절로 찾아오지만 인민을 위한 만복의 열매들이 주렁지는 풍요한 가을 이 펼쳐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헌신과 로고 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전 체 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모든 힘과 정열을 다바쳐가고있 는것이다.

고있다. 자체의 원료와 자재, 기 술에 의거하여 더 질좋은 제품들 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이 일터 마다 벌어지고있다. 백화점, 상 점들에 질좋은 국내산 상품들이 꽉 차있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것도 인상적이다.

평양과 지방에 있는 거리들을 지나가다보면 어른이나 아이들이 그분께서는 삼지연군과 원산 나 표정이 매우 활기에 차있는것 이 특징이다. 생활에 대한 근심이

많고 앞날에 대한 희망 이 없다면 이런 밝고 명랑한 거리의 분위기 를 생각할수 없다.

북의 청년들을 비롯하여 인민 들은 어제와 오늘을 긍지롭게 생 각하며 미래를 락판하며 산다. 인민을 위하는 옳바른 정치가 있 고 자립경제와 과학기술의 튼튼 한 토대가 있어 더 살기 좋은 락 원이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신

하는 북의 인민들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베풀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며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흠모하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 향상을 위한 공장과 과수농장, 고 따르는 이런 나라는 누구도 축산, 양어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굴복시킬수 없고 전진을 가로막

을수도 없다. 박 형 진(재중동포)

황 금 해 의

정이라고 하시였다.

는바이다.

바로 이

변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 로 나네

땅우에는 단풍계절 한해 한번 있다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일세

흥겨운 《바다 만풍가》의 선 률과 함께 동해에서 비릿한 바다 향기가 풍겨온다.

만선기를 휘날리며 포구로 돌 아오는 고기배들, 야외하륙장에 쏟아져내리는 물고기폭포, 랭동 저장고에 꽉 들어찬 물고기블로 크들…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먹지 않 아도 배가 부를것같은 이 광경에 서 풍성한 식탁에 마주앉아 즐겁 게 웃을 인민들의 밝은 모습이 어려온다.

그런가 하면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원아들의 모습도, 양로원 로인들의 모습도 안겨온다.

하다면 어디서나 풍기는 이 바 다향기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동해지구 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 시였다.

몸소 고기배에 오르시여 만선 하고 귀항한 어로공들을 축하하 시고 야외하륙장에 쏟아지는 물 고기폭포를 배경으로 그들과 함 께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수산사업소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이틀간 련속 동해 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돌아보 며 물고기산을 쌓아놓은것을 보 좋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 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쓰

면서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실적 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여 어로공들과 함께 바 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

인민들에게 물고기가 풍족하게 차례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얼마 나 마음쓰시였으면 자신께서도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다 고 하시였겠는가.

그러시면서도 중요하게 내세우 신것은 물고기들의 품질보장문제 였다.

인민들이 신선한 물고기를 먹 도록 하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물 고기들을 다루는 과정에 오염변 질시키지 않도록 위생학적요구 를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한 질서 를 세우며 잡은 물고기들과 보관 된 물고기들의 품질을 정상적으 로 검사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 치시였다.

수산사업소들의 물고기작황을 보시면서도 그이께서 먼저 생각 하신것은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 인들이였다.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육아 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 원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 에게 매일 300g의 물고기를 정 상공급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 었는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 게 벌려 이제는 하루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였다 는것을 보고받으시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수천리길도 달려가 보 아주시는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 랑으로 그이께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다. 몇해전 11월 어느한 수산사업 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한평생 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정말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

하

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 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 다도 황금해로 만드는것이 우리 의 숭고한 의무이라고 하시였다. 그때부터 황금해라는 새로운 부 류이 이 땅우에 태여나고 황금 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기 시작 하였다.

그이께서는 수산업을 발전시키 는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 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수산사 업소들을 찾고찾으시여 온 나라 에 수산열풍이 일어번지게 하시 였다.

새로 무은 고기배들에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 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단풍》이라는 이름도 달아주시 고 물고기잡이에서 위훈을 창조 한 어로공들을 몸가까이 부르시 여 그 한사람한사람에게 높은급 의 국가수훈도 직접 수여하시였 으며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 신 그이의 손길아래 포구마다, 어장마다 《바다 만풍가》의 노 래가 높이 울리게 된것이다.

황금해의 력사는 말한다. 하륙장마다 물고기폭포가 쏟아 져내리고 랭동저장고마다 물고기 블로크들이 산을 이룬 이 팡경, 바다먼 산촌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바다향기가 흘러드는 이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이 안아온 《이채어경》이 라고

인민들은 그 사랑을 길이 전하 며 부르고부른다.

이 기쁨이 뉘덕이냐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

해가세

김 창 일

최근 공화국이 감자농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올해 대홍단군에

서는 정보당 평균 51.5t, 최고 70여t의 감자가 생산되여 최고수 확년도수준을 돌파하는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 10월 북방의 찬눈을 맞 으시며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 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감자육종체계와 고리형순환생산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체계가 세워지고 농업생산의 종 감자저장고안에 빈자

리를 찾아볼수 없도록 무드기 쌓여있는 감자 산을 보시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신듯 기뻐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례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 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 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감자농사에 서 이룩된 이러한 자랑찬 성과 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서 이 룩된것이다.

공화국에서 감자재배와 가공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주체87(1998)년 10월 량강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 두고원의 넓은 대지에서 새 세 기 농업혁명의 본보기를 창조하 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농업생산구조를 대담하게 개선하 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서 감자를 심을수 있는 모든 곳 에 감자를 대대적으로 심고 그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일데 대 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 현을 위한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갂자농사혁명방침은 공화국의 구체적실정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혁 를 잘하면

얼마전 경애하는 지는 공원들과 극장, 영화관, 빙 상장, 호텔, 백화점 등으로 하 여 시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은 더 욱 높아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도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고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극도의 고온현상으

로 사람들이 무더위에 시달렸던 지난 삼복철에도 온 나라에 푸 른 숲 설레일 래일을 위해 강원 도의 양묘장을 찾으시였고 평양 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위해 새 로 만든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 의 시운전도 몸소 보아주시였다. 인민들이 불편없이 광천수를 마 음껏 리용하며 무병장수를 누리 도록 하시려고 험한 령을 넘고넘 으시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 장도 찾으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의주시를 보다 훌륭한 도시로 일떠세워주 실 구상을 안으시고 건설총계획을 지도하시였다. 인민의 기쁨과 행 복을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헌신 과 로고는 이처럼 끝이 없다. 신 의주시건설총계획을 지도하시면 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 시건설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인 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 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의주시 건설총계획을 지도하신 소식에 접하여 누구나 놀라고 감탄하는 것은 건설의 그 방대함이다.

신의주시건설은 수많은 주택구 역들과 공공건물들, 봉사시설들, 시립공원과 식물원, 유원지를 건 설하고 현재의 산업지구들을 정 리하며 시의 철도역과 의주비행 장을 개건하고 기본도로주변과 산업지역변두리에 상당한 면적의 록지띠를 조성해야 하는 등 많 은 건설과제를 안고있다.

사실 하나의 거리를 새로 일 떠세우는것도 힘든 일이지만 도 시전체를 새롭게 일떠세우는것은 그에 대비조차 할수 없이 아름찬 공사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 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지금 도 계속되고있다. 이런 속에서도 신의주시건설을 장기적으로가 아 니라 수년이라는 빠른 기간에 반 드시 결실을 보도록 국가적인 조 치가 취해지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힘을 최대로 강 화시키는 민족사적대업도 몇해어 간에 빛나게 결속하시고 불과 한 해동안에 북남관계에서도 온 세계 가 놀라고 격찬하는 위대한 전환의 국면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을 위한 사업도 그처럼 통이 크게, 불이 번쩍 일게 구상하시고 힘있게 내미시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창조의 손길이 있기에 공화국은 날마다 변하고 솟구치 고있다.

최근년간에도 나라의 곳곳에서 는 인민을 위한 새 거리들과 주 택들을 비롯한 창조물들이 우후 죽순처럼 일떠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려명거리 하나 만 보아도 구름이 손에 잡힐듯 아찔하게 높은 초고층아빠트들과 봉사시설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게 최 상의 수준에서 꾸려졌다.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도 이번에 북에 가 보니 려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는 사진을 찍어봐도 다른 나라들 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고층건 물들이 솟아있었다고 감탄을 터 치였다.

신의주시건설총계획 하나에도 인민의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 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애 국의지가 비껴있기에 밝은 미래 에 대한 신심과 락판을 더욱 가 다듬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0 PI **O** ***

위 한 인 민

느날 경애 하는 최 고령 도자 수 있게 진렬되여있었다. 2층 매 고기상점의 운영과 상품보장사업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보통강기슭 장들을 돌아보시고 3층 로대에 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서 인민 에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 오르신 그이께서는 고기상점자리 들이 만수교고기상점의 덕을 본 으시였다. 상점내부는 건축미학 가 명당자리라고, 고기상점이 마 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적으로 손색없게 시공되였고 상 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인 하시였다.

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또 하 나 하였다고 건설자들의 수고 주체 101(2012)년 4월 어 품들은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를 헤아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104(2015)년 1월 어 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생산현 출작업반 생산현장에서 무슨 냄 아신 그이께서 냄새라는것을

없 어 진 유 해 가 스 냄 새

장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사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시였다.

는 배풍을 잘하여 냄새가 나지 않 놓으면 냄새를 없앨수 있을것이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광 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산현장에 라고 그 대책방도를 알려주시였 서 나쁜 냄새가 나면 로동자들의 다. 그해 11월 또다시 원산구두

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사출 그이께서는 두손으로 배풍갓을 작업반 생산현장을 돌아보시며 새가 난다고 하시였다. 염화비닐 형상하시면서 냄새가 나는 작업 천정에 설치된 배풍기로 유해가

본사기자

튐성체에 열을 가하기때문에 나 장에 식당들의 천정에 설치한 갓 스를 뽑아버리니 냄새가 나지 않

명적인 방침이였다. 여기에는 벌방지대뿐아니라 북

부산간지대에서도 농사를 잘 지 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있 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정연한

합적기계화가 다그쳐져 감자생산

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를 비롯

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감자심

기로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과정

을 맡아수행함으로써 백두삼천리

에 종합적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였다. 해마다 백두삼천리벌

에서 온 나라를 기쁘게 해주는

좋은 감자작황이 펼쳐지고 현대

창조되였다

감자가공에

서도 비약적

인 발전을 이

감자에 는

농마와 비타

민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

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오

강장수식품으

로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

일 찌

장군님께서

는 감자농사

건

기

한

래전부터

여왔다.

위 대

룩하였다.

자동화된 최상급의 수확기와

량문제와 고기문제도 풀수 있고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감자농사를 잘하여 우리 나라를 아시아의 《감자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하시였다

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되

정기적인 감자연구 및 생산,

가공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와

특색있는 감자료리경연들이 진행

되여 감자료리의 가지수가 대폭

늘어나고 그 맛과 질이 현저히

오늘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 에 의하여 대홍단에 현대적인 감 자가공기지가 건설되여 농마와 감자가루, 여러가지 감자가공품

자산

이뿐이 아니다.

개선되였다.

였다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감자농사 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 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올해에만도 여러차례나 삼지연군 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고 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 량강 도의 감자농사문제로 그토록 마 음쓰신 장군님의 념원을 꼭 풀어 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

다시 찾으시였을 때 에는 감자가루가 대대 적으로 생산되는데 맞 게 인민들에게 감자가

루의 우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서도 알려주고 감자가루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널 리 소개선전하여 식생활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 시였다.

오늘날 감자재배와 가공에서 일 어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공화 국이 바야흐로 아시아의 《감자왕 국》으로 될 그날이 가까와오고있 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남



통일에로 나아가는 민 족 의 힘 찬 평 화 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2018년이 저물 어가고있다. 돌이켜보면 2018년 은 북남이 손잡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관계개선의 새로운 력사 를 써온 긍지로운 사변의 한해였 다. 1월부터 저무는 이해의 12월 까지 조선반도에서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

나고 전세계가 우리 민족의 화

내였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언덕에 서 우리 겨레는 환희와 희망, 감 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올해의

해와 평화노력에 박수갈채를 보

북남관계사를 돌이켜보고있다. 삼천리강토에 굽이치는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도도한 흐름

로 엄청난 변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것 같았던 이 땅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였다. 북남관 계가 반목과 대결, 적대의 어두 운 과거에서 벗어나 화해와 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확고히 나아가

2018년의 조선반도에서는 참으 고있다.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 적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기류 가 흐르고있다.

2018년 한해동안에 이 땅우에 서는 이미 세차례의 북남수뇌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는 사변 이 일어났다. 대결과 분렬의 상 징인 판문점에 따뜻한 화해와 평화의 봄이 오고 겨레의 가슴 마다에도 봄이 오고 화해의 꽃

이 피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해에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북남관계개선 과 평화번영을 위한 리정표이다. 이 선언들을 그대로 리행해나 갈 때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개 척에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채택한 력사적인 선 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 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이에 따라 여러차례의 북남고 위급회담들이 진행되고 판문점선 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 행하기 위한 각 분야의 후속회담 들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지난 9월에는 개성공업지구에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되여 자기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북남 관계개선을 더욱 추동해주게 되 였다.

남사이에는 끊어 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어 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 은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 하여 민족의 통일의지를 온 세상 에 과시하였다.

남조선의 대전에서 진행된 국 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 코 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복식 경기에 참가한 북남단일팀이 영 예의 1위를 쟁취하였는가 하면 평양과 서울에서 북남통일롱구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 가 성황리에 열리였다. 또한 북 과 남의 태권도인들도 평양과 서 울, 속초에서 합동시범출연을 펼 쳐 민족의 기개와 용맹을 과시하 하나로 합쳐져나가는 태권도 의 위상을 펼치였다.

북과 남의 예술교류도 벌어져 삼지연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 서 축하공연을 하고 남측예술단 이 평양을 방문하여 《봄이 온

다》는 제명의 공연무대를 펼치 였다.

군사분야에서도 북과 남은 력사 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 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판 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 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 행하기 위해 판문점공동경비구 역과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 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 진시켜나가고있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 북 남의 통일행사들도 펼쳐져 겨레에 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를 비롯한 북남공동행사장들에서는 북과 남 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손을 뜨겁 게 맞잡고 평화번영과 통일로 향 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고 굳게 약속하였다.

우리 민족이 탄 화해와 평화번 영의 렬차는 지금도 힘차게 달 리고있다. 누구도 조선반도의 이 격변의 흐름을 막을수 없게 되 였다.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령 도 의

올해에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 의 유명개척에서 일어난 놀라운 전환의 국면은 저절로 마련된것 이 아니다.

핟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대범한 결단과 확고부동한 평화통일의지, 뜨거 운 민족애와 넓은 도량, 민족을 위한 무한한 헌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2018년 새해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 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 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빚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위인의 그 말씀은 북남관 계의 오랜 어둠을 가셔주는 밝은 빛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불길을 지 퍼주시려고 남조선에 삼지연관현 악단과 선수단, 응원단을 비롯한 사절단들을 련이어 파견해주시였 다. 그리고 올림픽개막식과 페막 식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하심으로써 올림픽무 대에서 펼쳐진 민족화해의 불길 이 북남관계개선에로 이어지도록

군사적긴장이 가장 첨예한 판 문점에 나가시여 두차례의 력 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 시고 민족이 평화번영에로 가 는 새 출발의 장엄한 신호총성 을 울려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추동해주시였다.

4월 27일 오전 9시, 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판문 점분리선의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시는 모습은 우리 민 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 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 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 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력사의 그날 경 애 하 는 원수님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력 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 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 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 고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의 상봉과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 였고 우리 겨레는 민족화합과 평 화번영,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힌 통일의 대강, 통일의 리정 표를 받아안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29일만인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는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또

다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 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 화해주시려고 력사적인 평양상봉 도 마련해주시였다.

가없이 맑고 푸른 평양의 가을 하늘아래에서 남조선대통령을 환 영하는 성대한 환영의 물결과 축 하공연들이 펼쳐지고 력사적인 수뇌회담도 진행되여 온 겨레를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가슴설레 이게 했다. 그것은 위인의 뜨거운 민족애, 확고부동한 통일의지가 펼친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앞길을 또다시 휘황히 밝힌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 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 겨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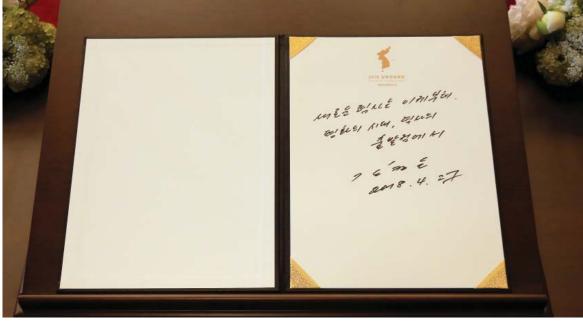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이 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 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 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 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 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이해에 북남 관계에서는 실로 놀랍고도 풍성 한 열매가 주렁졌다.

력사는 위인이 창조한다.

온 겨레와 세인이 칭송하는 절세위인을 무셔 격동과 화희의 2018년이 있고 보다 희망찬 새해 2019년의 밝은 앞날도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 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 을 짓부시며 삼천리강토의 북에 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통일 렬차가 거침없이 내달릴 평화번 영과 자주통일의 새날을 향해 더 욱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방명록에 남기신 친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 가 펼쳐진 올해에 북낚사이에는 민간의 래왕과 협력, 통일운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지난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 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관철 2018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 적인 해로 빛내일 드높은 의지 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 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 였다. 호소문은 북과 남사이의 적대와 대결을 끝장내고 북남관 계에서 대전환, 대사변을 이룩 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로 온 겨레를 부르는 뜨거운 애 국의 호소였다.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 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데 대한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 대,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소에 화답하여 년초부터 남조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화국 의 통일운동단체를 비롯한 각계 층 단체들도 북남관계개선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다.

측위원회는 《김정은위원장의 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

신년사환영론평》을 발표하여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공동노 평창올림픽대표단파견의향 등을 천명한데 대해 적극적인 환 영의 뜻을 밝힌다.》, 《북측의 제안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진 시키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 을 위한 련합회의를 진행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다.》 고 밝혔다.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합시다.》,《평창올림픽은 민 족의 대축제이다.》라고 웨치면 서 민족적화합과 통일열기를 고 조시켰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평양의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북과 남의 예술인들은 련환공연무대 《우리 는 하나》를 펼쳐보이였다. 출연 자들이 특색있는 종목들을 펼쳐 하나, 언어와 문화도 하나인 우 리 겨레는 결코 갈라져 살수 없

리정표가 마련되고 대결과 전쟁 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 대가 도래한 이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더욱 고조를 이

6. 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맞 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피줄도 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 동위원회는 결의문을 발표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대한 여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가 진행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새로운 되여 북과 남이 하나로 뭉치면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더 높이 의 먹구름이 드리웠던 조선반도 펼칠수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

> 판문점선언리행의 성과에 토대 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 에로 발전시켜 통일에로 이어나 가기 위한 실천강령인 《9월평양 공동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 계기를 마련하였다.

로 되였다. 에서는 북남민화협단체들의 공동 행사와 금강산관광시작 20돐기념

동선언》리행을 위한 첫사업으로

진행된 민족통일대회는 우리 민

번영, 통일에로 향한 민족사적호

름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려는 북

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

은 열망과 확고한 의지의 과시

의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선수 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 범단 등이 파견되여나갔을 때 남 조선의 각계층은 공화국의 사절 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6.15공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진보련 의 대표단에 대한 《환영단》을 조직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통일 기를 흔들며 《반갑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실천 남 《민족도 하나 우리도 하나이

는 하나의 민족임을 다시금 절 감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

북남의 태권도인들도 민족적화 해와 단합의 열풍속에 북과 남을 오가며 여러차례의 합동시범출연 을 진행하였다. 태권도로 민족화 합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데 이바 지하려는 일념안고 무대에 함께 출연한 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 범출연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용 맹의 상징인 태권도의 위력을 과 시하며 북남관계발전의 분위기를 추동해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 구경기가 개최되고 서울에서는 온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

4.27선언의 채택을 적극 지지 환영하면서 해내외에서 세차게 고조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열의 를 하나로 모아 자주통일의 미 래를 앞당겨나갈것을 결의하였 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 위원회는 조국해방 73돐을 맞으 면서 북남수뇌분들의 숭고한 정 신과 통일애국의 뜻을 받들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갈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평양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과감히 실천하기 가 열린 올해에 남조선 각계층 위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 족통일대회가 진행되였다.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이어 진행된 10.4선언발표 11돐 기념 민족통일대회는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와 더불어 조국 통일사에 특기할 전민족적인 대 회합이였다. 대회에는 평화번영 의 새시대, 통일의 새 력사를 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

의 통일운동도 힘있게 벌어졌다. 올해에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 단체들은 외곡된 시각으로는 북 을 도저히 리해하기 어렵다고 하 면서 지난 시기 평양을 방문하였 던 인사들을 강연회와 토론회들 에 내세워 공화국의 현실을 구체 또한 평양에서는 북남통일롱 쳐나가려는 드높은 열망을 안고 한 도서들이 대량 출판보급되고 것이다. 《우리 집이야기》, 《김동무는

표들이 참가하였다. 《9월평양공 하늘을 난다》를 비롯한 공화국 의 영화들이 상영되는 등 《북 바로알기운동》이 활발히 벌어 족끼리 손을 굳게 잡고 평화와

지난 7월 남조선의 여론조사에 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 답자가 77%에 달했고 특히 지난 시기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였던 20대 청년들속에서 《통일이 필 지난 11월 민족의 명산 금강산 요하다.》는 응답자가 지난해의 39%에서 74%로 증가하였다.

> 남조선의 전반지역들에서는 《통일박람회》, 《남북하나통 일예술단공연》, 《평화, 통일 주제의 영화축전》, 《북노래배 우기》와 같은 다양한 통일주제 의 행사들이 련이어 개최되여 통 일열기를 고조시켰다.

민심은 천심이며 그 누구도 자 주통일과 평화번영에로 향한 우 리 민족의 거족적진군을 가로막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그 어 떤 외풍과 역풍에도 구애됨이 없 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 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앞 적으로 소개선전하였다. 문학계 으로만 나아갈 때 민족자주통일 와 영화계에서도 공화국을 소개 의 력사적위업은 앞당겨 성취될

본사기자 최 광 혁

김히의 맞과 향기, 영양학적기에가 높아진다

— 전국김치전시회장을 돌아보고—

민족료리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식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 하게 할뿐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

얼마전 공화국의 려명거리 료리축전장에서 진행된 전국 김치전시회는 날로 발전하는 민족음식문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전시회는 성, 중앙기관 봉 사부문, 인민봉사부문, 대외 봉사부문, 평양시사회급양 봉사부문, 각 도(직할시)급 양봉사부문, 평양시녀맹부 문으로 나뉘여 김치전시, 시 범출연 등의 형식으로 진행 되였다

김치는 우리 나라의 가장 특색있는 민족음식으로서 세 계 5대건강식품의 하나로 널 리 알려져있다.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 민족의 김치담 그기풍습이 오늘도 계승되고 나날이 발전하고있으며 김치 의 종류에 따라 그 닦그기방 법과 기술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여러 력사 도서들에도 김치의 종류가 40여종에 달하며 그 가공 에 쓰이는 재료도 대단히 많은데 대해 상세히 기록 되여있다.

이번 전시회는 김치가공에

누구보다 조예가 깊고 능란 하며 임의의 김치도 능숙하 게 만들어낼수 있는 재능있 는 료리사들과 함께 가정의 식생활을 풍부하게 하는데서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 쳐가고있는 가정주부들을 참 가시켜 그들이 김치전시와 시범출연과정에 서로 우수한 경험을 나누며 평시에 런마 한 자기들의 김치가공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줄수 있게 진 행되였다.

모란지도국, 평양호텔에서 전시한 보쌈김치, 백김치와 함경북도, 락랑구역녀맹위 원회에서 내놓은 갓김치, 양 배추김치가 민족전통음식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고 영양 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참가 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범출연에 참가한 옥류관 과 청류관, 경흥지도국, 묘

향지도국의 료리사들은 평시 에 런마해온 재치있는 솜씨 로 시원하고 쩡하면서도 독 투한 향기와 상쾌한 맛이 조 화를 이루는 통배추김치와 동치미, 총각김치, 깍두기

등을 만들어 내놓았다.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는 김성녀녀성은 지금까지 터득 한 통배추김치를 맛있게 담 그는 비방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주었다

김장용고추의 색갈을 잘 살리자면 고추에서 색을 내 는 성분이 잘 우러나오게 해 야 하는데 온도가 40~50℃ 인 연한 소금물에 고추가루 를 두고 되직하게 갠 다음 일정한 시간 놓아두었다가 갈아서 쓰면 고추의 색갈이 본래보다 더 빨갛게 된다. 또한 김치맛을 돋구는 주요 한 비결의 하나는 간을 잘 맞추는것이라고 하면서 배 추초절임은 흔히 7~8%의 소금물에 16~24시간 절이 며 김치소의 간은 좀 짭짤 하다 할 정도로 되여야 배

추포기에 양념맛이 잘 배여

들어 맛이 좋아진다고 이야 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문료리사들과 이 야기해보니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은 한가지를 넣는것보다 여러가지를 섞어 써야 맛이 살아난다고 하였다. 멸치젓 은 끓여서 맑은 웃물만 리 용해야 김치의 색이 좋아지 고 명태와 멸치젓을 3:1의 비률로 섞는것이 좋다고 하 는데 다음해 김장철에는 꼭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것이 였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김치 를 맛있게 담그는것을 자랑 으로, 뗼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있는 슬기로 운 민족이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우 리는 이번 전시회가 우리 민 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음식인 김치의 맛과 향기, 영양학적 가치를 높여 인민들의 식생 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 한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굳

月鲁鲁의 景中县 정从

추운 겨울이지만 평양의 곳곳에서는 구수하게 풍기 는 군고구마와 밤굽는 냄새 가 길손들의 발걸음을 멈추 하고 김이 문문 나는 군 고구마를 손에 든 사람들 의 모습이 겨울풍치와 어울 려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고 있다.

던 로인내외도 그 향기에 이끌려 매대로 다가가 김 을 문문 피워올리는 노르끼

레한 군고구마를 사서 드는 가 하면 거리를 지나던 아 이들도 군밤, 군고구마매 대를 그냥 지나지 못해 엄 마, 아빠들의 옷자락을 아끈다.

마음이 흐뭇해져 아이들도 구마를 손에 들고 후후 불며 맛보는 모습은 아름답고 유 정한 평양의 거리들에 펼쳐 진 겨울철의 특이한 풍경이

누구나 한번 맡으면 절로

아닐수 없다

1970년대의 어느 가을날 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인민들에게 군밤, 군 고구마를 팔아줄데 대해 교시하시면서 저장으로부 터 보관, 판매에 이르기까 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 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강행군을 하고있 던 때에도 평양

> 구마나 밖을 구 워 파는것이 별 로 보이지 않는 다고, 역앞이나 네거리의 매점 들에서 고구마 와 밤을 구워 팔 아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 시였다.

시 거리들에 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잊혀질번 하였던 군밤, 군

고구마는 이렇듯 절세위인들 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서 우리 생활에 청신한 모습 으로 자리잡게 되였다.

평양의 거리마다에 줄지어 들어앉은 야외매대들에서 구 수하게 풍겨나는 군밖, 군 고구마냄새에 취해 한 해외 절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 며 밤청대를 하던 고향마을 에 들어선 심정이다. 이렇게 민족적인 향취와 토색이 짙 은 산촌의 향기를 대도시에 서 맡아보리라고는 정말 생 각도 못했다. 평양의 군밖 군고구마는 인민을 위하여 국가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 여 특별히 봉사하여주는 인 민적인 혜택이며 사회주의향 기이다.》라고 진정을 토로 하였다.

흰눈덮인 겨울에 평양의 거리마다에 풍기는 민족의 정서—구수한 군밤, 군고구 마향기는 참다운 인민사랑 의 정치가 펼쳐지고있는 공 화국에만 있는 사회주의향기 인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구밤군고구마

가장 엄중한 세계에서 10대모염

1. 원유류출

바다로 류출된 원유는 새 류와 물고기류, 기타 바다생 물들을 멸족시킬수 있으며 생태계는 수십년 지나서야 회복될수 있다.

2. 방사성페기물에 의한 오염

대부분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와 핵무기회수 처리과정에 생겨나지만 의학 과 공업, 석탄 및 광석채굴, 원유가공과정에서도 산생될 수 있다.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물과 공기를 오염시킨다.

3. 도시공기오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 하면 많은 나라들이 조치를 취 하고있지만 세계적으로 10명당 9명은 여전히 오염도가 높은 공기속에서 숨쉬고있으며 해 마다 공기오염에 의한 각종 질병으로 약 700만명의 사망 자가 발생하고있다.

4. 수은중독

수은은 외부에 로출되면 토양과 물, 공기속에 점차 싼이게 되다 수으주도의 호 과는 인식능력저하, 콩팥기 과 물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되

능저하, 머리칼빠짐, 이발과 손톱빠지기, 나른한감 등으 데 의하면 현재 많은 나라와

로 나타난다. 5. 온실가스방출

속에 점점 많이 쌓이면서 지 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빚어 내고있다.

6. 제약오염

최근년간 제약과정에 생겨 나는 오물에 대한 우려가 높 아가고있다. 해마다 의사들 은 환자들에게 헤아릴수 없 이 많은 약처방을 내리고 있으며 사용과정에 환자들 이 버린 약품들은 최종적으 로 물공급체계에 들어가 물 을 오염시켜 사람들의 생명 과 건강에 부정적영향을 미 치게 된다.

7. 합성수지오염

대부분의 합성수지에는 독 성분이 들어있다. 지나친 합 성수지사용으로 인하여 생 겨난 오물은 지금 세계적으 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

8. 페수에 의한 오염 정화되지 않은 페수는 질병 한다고 한다

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지역에서 21억명이 위생적으 로 불결한 물을 리용하고있으 온실가스는 방출되여 대기 며 그중 8억 4 400만명이 깨 끗한 먹는물을 공급받지 못하 고있다고 한다.

9. 연중독

1977년전까지 연은 뼁끼제 조과정에 쓰이였다. 현재까 지도 연이 들어있는 뼁끼가 일부 사용되고있다. 연에 중 독되면 심장, 콩팥, 신경계 통, 생식계통, 뼈와 장기 등 대부분의 인체기관이 피해를 입는다. 특히 발육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 우 심각하다.

10. 농업오염

살충제. 처리하지 않은 배 설물 등은 모두 농업오염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들이 다. 그것은 이러한것들이 최 종적으로 물공급체계에 들어 가기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마름류들이 대량 번식하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소모하 여 《죽음의 구역》을 형성

대고 양양읍에 들어가서 자

수하였다. 미리 리인성에게

본사기자

OF

H4

자료에 의하면 여러 나라들에서 각종 창상의 치료에 효과가 높은 음압창상치료법을 널리 적 용하고있다.

타박상, 화상 등에 의해 생긴 창상은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며 근육을 비롯한 연부조직의 손상 으로 출혈과 삼출액, 괴사조직이 많이 생기면서 잘 아물지 않고 만성적으로 경과한다.

종전의 창상치료법의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개발된 음압창상치료법은 배액관을 가지고있 는 의료용거품피복재료로 창상면을 덮고 그우에 공기만을 한쪽 방향으로 투과시킬수 있는 반투과 성의 투명한 점착박막으로 창상부위를 밀폐시킨 다음 배액관으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음압)을 조성하여 창상면에서 흘러나오는 삼출액이나 괴 사조직을 지속적으로 빨아냄으로써 창상이 빨리 아물게 하는 치료방법이다.

자료에 의하면 음압창상치료법은 최근에 급 성창상과 난치성의 만성창상을 치료하는데서 가장 선진적인 창상치료기술의 하나로 인정되 여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널리 적용되고있 다고 한다.

창상치료에 음압창상치료법을 적용하면 피복 재료의 교체회수를 줄이고 항생제사용기간과 치 료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또한 붓기가 완화되 고 투명한 점착박막을 통하여 늘 창상을 관찰하 는데 편리하며 치료후 흠집이 종전의 치료법에 서보다 비교적 깨끗하다. 한편 이 치료법에 사 용되는 폴리비닐알콜거품피복재료는 해면과 같 이 유여하고 타력성이 좋으므로 얕은 창상은 물 로 깊은 창상에도 적용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 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울릉도를 찾아온 안룡복(3)

홍기 문. 그림 김영희

분통을 참지 못하여 이리저 리 돌아다니다가 울산에서 장사하러 다니는 중 뢰헌을 만났다. 그 중은 지금 바로 한척의 배를 장만해놓고 어 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할가 세우고 마주 내려가면서 일 보고있는 중이였다. 안룡복 은 곧 뢰헌에게 울릉도에 한 번만 다녀와도 막대한 리익 을 얻을수 있다고 제의하였 다. 요전번 안룡복과 같이 갔던 40여명의 사람들이 소 문을 퍼뜨리여 뢰헌도 일찌 기 울릉도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터라 어렵지 않게 그 제 의를 받아들이였다. 안룡복 은 뢰헌에게 다시 권해서 힘 이 세고 몸이 날래기로 린 근고을에서 유명한 류일부와 글도 제법 지을줄 알고 한문 글씨도 잘 쓰는 리인성을 다 함께 배에 태웠다. 또 그는 무관들이 보통으로 입고 쓰 고 하는 푸른 천릭(당상관이 입는 군복) 한벌과 붉은 갓 을 준비해가지고 떠났다. 바 람이 순하지 못하여 전번보 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사흘 서 그 이튿날아침 우산도까 째 되는 날 무사히 울릉도에 지 추격했다. 왜놈들이 그때 닿았다. 여러 사람들은 곧 나무도 찍고 전복도 따자고

하는것을 안룡복이 이 핑게

저 핑게로 만류하면서 일본

안룡복은 북받쳐오르는 어선이 오기를 기다리였다. 고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우 조금 지나서 과연 일본어선 이 서너척이나 우르르 몰려 들고 거기서 일본어부들이 쏟아져나왔다. 안룡복은 류 일부이하 장정 수십명을 앞 본말로 호통을 쳤다.

> 《너희놈들이 다시는 우리 울릉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백기주태수가 관백 의 명령을 받아서 나에게 약 속한 일이 있다. 어째서 너 희놈들이 또 들어오는거냐? 이번에는 너희놈들을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다. 꼼짝 말고 우산도 두 섬의 세금을 감 섯거라.**》**

다시 우리 말로 류일부에 게 《저놈을 묶으라!》 고 소 리를 질렀다. 그러자 일본 어부들중의 한놈이 대답하

《우리가 본래 마쯔시마로 간다는것이 길을 잘못들어 이 섬으로 온것입니다. 곧 와 대등한 자리에 앉아서 담 그리로 가겠습니다.》

일본어선이 떠난 후 안룡 복은 다시 뢰헌을 설복해 한참 아침밥을 짓고있었는 데 안룡복이 몽둥이를 휘둘 러 솔을 부시면서 꾸짖었다. 《너희놈들이 마쯔시마라

산도다. 우산도도 우리 나라 다.》

왜놈들은 거기서 또 도망 쳤다. 안룡복은 추격을 계속 하였다. 일본 옥기도란 섬에 까지 쫓아가서 그 도주를 만 나서는 백성들을 잘 단속하 지 못한 책임을 묻고 그자들 을 잡아서 벌을 줄것을 요구 하였다. 도주도 하는수없이 울릉도에 갔던 어부들을 처 벌하고 많은 례물을 내여 사 과하였다.

안룡복은 자기가 울릉도, 독하는 무관이노라고 하면서 백기주태수에게 만나자고 기 별하였더니 백기주태수는 일 부러 많은 하인과 여러 사람 이 탈것들을 보내여 그 일행 을 영접하였다. 안룡복이 붉 은 갓을 쓰고 푸른 천릭을 입고 백기주로 갔으며 태수

판을 진행하였다. 《대마도주가 우리 나라와 귀국사이에 있어서 두 나라 를 함께 속이는것은 비단 울 릉도의 한가지 일만이 아니 요. 우리 나라에서 보내는 쌀은 열닷말 한섬인데 일곱 말 한섬으로 만들고 베는 서 른자 한필인데 스무자 한필

만들고 종이는 길이가 몹 시 기니까 세동강에 내여서 물품 다자에 적히 수자와만 맞추고있소. 관백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수 있겠소? 두 나라에 함께 해로 되는 이런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사 연을 글로 적어 관백에게 한 번 올려주시오.》

백기주태수는 이미 전번 에 안룡복의 인격을 알았고 또 이번 들은 이야기에 의하 여 대마도주의 행동을 몹시 비렬하다고 인정하였다. 그 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안룡 복의 청을 쾌히 승낙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에도(지금

《관백에게 글을 올리는 것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릴것까지는 없지 않소? 이제 부터는 울릉도문제에 대해서 도 전과 같이 행동하지는 못 할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 든 사람을 한번만 더 보내주

간청하게 되였다.

시오.》 안룡복도 더 다른 도리가 없어 우리 나라로 돌아오는 데 백기주태수가 정중한 작 별인사와 함께 각종의 례물 을 많이 선사하였다. 그는 옥기도와 백기주에서 받은 례물을 뢰헌이하 여러 사람



의 도교)》에 있던 대마도주 의 애비가 그 소문을 듣고 그 글이 관백에게 올라가는 즉시 제 아들은 배를 갈라야 할것이라고 해서 백기주태수 에게 애걸복걸하였다. 거기 서 백기주태수의 마음이 돌 아 이제는 도리여 안룡복에

에게 나누어주면서 자기의 본뜻이 장사에 있지 않은것 을 밝히였다. 뢰헌이하 여 러 사람들이 감격해하는것 은 물론이요 언제나 그를 쫓 아다니면서 일을 하겠노라 고 굳은 결심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배를 강원도 양양에

부탁해서 날마다 일기를 써 제 잘못을 깨달은 이상 그 온 까닭에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그 일기도 바치였다. 이 사건을 가지고 양양부사 는 강원감사에게 공문을 올 리고 강원감사는 다시 임금 에게 글을 올리였다. 서울 의 량반통치계급은 천한 신 분으로서 감히 관리의 옷을 입고 외국에 가서 관리행세 를 한 놈은 죽여서 마땅하다 고 대단히 격분하였다. 이때 대마도주는 다시 사람을 보 내여 울릉도를 조선의 땅으 로 인정하도록 제가 관백에 게 제의한 결과 그렇게 결정 되였다고 기별하였다. 그와 동시에 안룡복이 두 나라간 의 교통은 반드시 대마도를 거친다고 한 오랜 약속을 파 기하고 제멋대로 직접 백기 주에 드나들었으니 그를 처 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안 룡복을 죽여야 한다고 떠들 던 량반들도 이제 와서는 그 의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 하지 않을수는 없었으나 신 분에 당치 않게 관리행세를 한 그 죄가 공로보다 더 크 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겨 우 사형을 감해서 먼 변방으 로 귀양살이를 보내라고 판 결을 내리였다.

안룡복은 귀양살이의 처소 로 정해진 땅을 향해 양양을 떠나갔다. 뢰헌, 류일부, 리 인성 등 그와 일본에 같이 갔던 여러 사람들도 그의 뒤 를 따라 떠났다.

(끝)

천연기념물 오가산주목

주목은 사철푸른 바늘잎키 나무로서 우리 나라의 해발 높이 2 000m아래의 높고 깊 은 산지대에서 자란다.

직경 50~80cm이며 나무껍질 이 붉은밤색이므로 적목이라 고도 한다. 가지는 거의 수 평으로 뻗고 잎은 잔가지에 수평되게 줄지어 붙어있으며 겉면은 진한 풀색이나 뒤면 은 누른풀색이다.

그늘, 추위 등에 잘 견디 며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높

성장속도는 매우 굼뜬데 10년동안에 2.5m정도 자라 며 최고 1 500년까지 산다 고 한다.

잎과 줄기는 약재로, 목

재는 가구재, 건축재, 세공 재, 조각재, 공구재, 연필 재로 쓰인다. 또한 생김새 가 아름답고 가을에는 붉은 나무의 높이는 10~20m. 열매가 달려서 보기 좋으므 로 정원, 공원에 장식용으 로 심는다.

> 천연기념물 오가산주목 은 자강도 화평군 가림리 에 있다.

이 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주목 의 하나로서 오가산원시림의 자연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고 물을 비교적 많이 요구 나무이므로 천연기념물 제 103호로 지정되여 보호관리 되고있다.

나무의 높이는 16m, 밑둥 둘레 3.7m, 가슴높이둘레 3. 2m, 나무갓직경 7m이다.

본사기자

유모0

책임회피 며 느리의

쳤다.

머느리가 밥을 다 지은 후 먼저 시아버지한테 한사발 퍼드렸다.

시아버지는 밥을 한술 먹 어보더니 며느리를 칭찬하

《오늘 밥은 참 맛있구나. 한사발 더 먹어야겠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칭찬 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말 하였다.

《밥을 제가 지었어요.》 시아버지가 두번째 밥한술 을 입에 넣고 방금 씹기 시 작하였는데 《딱》하고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밥에 웬 돌이냐?》 시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

《쌀은 누이가 일었는데 요.》 며느리가 말하였다. 시아버지는 숟가락으로 밥

그릇을 두어번 들추고 냄새

를 맡아보더니 말하였다. 《밥에서 탄내가 나는구 나》

《불은 어머니가 땠어

요. 》 며느리가 서둘러 대답하 였다.